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제안서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발전적 측면을 수용함으로써 좀더 진전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기준이 분명치 않음으로써 발생했던 인권문제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만큼, 최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는 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례안의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규칙 등에 위임하기보다 최대한 조례 본문에 관련 규정을 담아 추후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광노현 교육감이 부재하고 교과부가 파견한 부감 대행체제에 놓인 교육청에 조례의 정신에 합당한 교육규칙 제정을 내맡겨두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교육감의 입맛에 따라 규칙이 제멋대로 바뀔 수도 있으며, 교육규칙의 내용을 담보해 낼 교육청 자문위의 위상도 상당히 흔들린 상태인 만큼, 교육규칙에 위임하기보다 조례안에 최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2011년 연내에 전국 어느 곳보다 진전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2011.12.12)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장 총칙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안이 더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자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u>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u>	다만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안이 학생의 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을 둔 것은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조례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만 과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균형을 깨뜨리고 있음. 경기도와 광주 조례와 비교해 보아도 과한 조치라고 보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 2조 제 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을 말한다.	주민발의안 원안에서도 학생에게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학생의 책무 관련해서는 주민발의

<p>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p> <p>4.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p> <p>5.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p> <p>6.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7.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p>	<p>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에 학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적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학원에 등록하여 재원중인 사람은 학생으로 본다.</p> <p>5.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p> <p>6.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7.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p>	
<p>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p> <p>②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③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p>	<p>안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함.</p>
<p>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유치원장 포함. 이하 같다.),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p>	
<p>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장 학생의 인권</p>	<p>제2장 학생의 인권</p>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p>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u>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 교육시설의 확보나 교육의 실시 등 모든 학교생활에 있어 모든 학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현재 이 조항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경기도조례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음.</p> <p>만약 이 조항이 불필요한 해석을 낳는 문제점 때문에 수정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개별 항목을 제외시키기보다는 포괄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p> <p>=> <포괄조항으로 수정할 경우></p> <p>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구별, 배제, 또는 제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어떠한 이유와 형태로든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 교육시설의 확보나 교육의 실시 등 모든 학교생활에서 모든 학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p>
<p>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p>	<p>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p>	
<p>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p>	<p>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p>	
<p>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원안의 9조 2항은 10조 2항으로 옮김. 원안의 9조 5항은 ‘차별 시정 및 적극적 조치’ 장으로 옮김 교육청 자문위원의 내용 가운데 발전적인 내용을 수용함.</p>
<p>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p>	<p>제10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의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참석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p>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p>	<p>제11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의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p>	<p>항의 순서를 변경함</p>
<p>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12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p>	<p>원안의 22조로 배치된 문화권을 ‘교육에 관한 권리’ 절에 포함시켜 위치를 재조정함.</p>
<p>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p>	<p>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p>	
<p>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p>	<p>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u>학생의 의사에 반하여</u>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3조 2항이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해석의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p> <p>=> “다만, 교복 착용 여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예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p>	<p>제14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p>	<p>교육청 자문위원을 참고하여, 사</p>

<p>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 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p>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p> <p>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그를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다시 제시함.</p>
	<p>제15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p>	

	<p>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때에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6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p>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원안에 규정된 내용을 올해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내용을 간명화함.</p>
<p>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p>	<p>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p>	
<p>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 	<p>제17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 	<p>학생의 종교 자유와 관련하여 교육청 자문위원에서 좀더 진전시키고 있는 6항과 7항을 추가로 포함 시킴.</p>

<p>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p>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p> <p>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p>	<p>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p>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 2항과 3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p> <p>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p> <p>⑥ 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한 학교의 배정에 있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⑦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종교와 관련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18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내 집회의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규정을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이 때, 제한 사유와 절차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규정을 통해 자의적인 제한 또는 처벌 규정이 만들어질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p> <p>=> 18조 3항에 단서조항을 삽입할 경우</p> <p><u>“다만,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u></p>
<p>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p>	<p>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p>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19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20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경우 30인 이상의 찬성

교육청 자문위안에서 진정된 항목을 추가함. 학교 동아리 등에 대한 부당한 해산, 활동 제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함.

학교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청 자문위안에서 마련한 안이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함.

13조, 14조, 18조의 단서조항 삽

<p>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p>	<p>을 받아 학생회를 경유하여 발의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발의가 있거나 학교 규정의 제·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의 동수로 구성된 학교규정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학교규정 제·개정안을 검토·확정한다.</p> <p>④ 학교규정제·개정위원회는 학교규정 제·개정안을 검토·확정함에 있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 제·개정안에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p>	<p>입 여부에 따라 20조 4항의 내용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p>
<p>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u>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u>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p>	
<p>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p>	<p>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p>	
<p>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p>	<p>제22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p>	

<p>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p>	<p>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p>	
<p>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3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p> <p>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p>	
<p>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p>	<p>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p>	

<p>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p>	<p>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u>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 align="center">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	<p align="center">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	
<p>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p>	<p>제27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p>	
<p>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p> <p>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8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기타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p> <p>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align="center">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p>	<p align="center">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p>	
<p>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p>	<p>제29조(차별 시정 및 적극적 조치)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학생,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p>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이후의 장은 교육청 자문위원의 구성이 체계적이고 내용도 자세하여 자문위원을 대부분 수용하였음. 다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기구로 학생의회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주민발의 원안의 학생참여위원회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함. 학생회는 학생인권뿐 아니라 조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자치활동

		<p>등을 벌여야 할 학생자치조직이므로, 학생회와 학생의회를 학생인권을 위한 기본 구조로 상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봄.</p>
	<p>제1절 학생인권위원회</p>	
<p>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p>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p> <p>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p>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제30조(학생인권위원회)</p> <p>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이하 “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 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심의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p>③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31조(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p>	

	<p>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인 이상 2. 학생참여위원회에서 학생인권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인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인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7.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이상 <p>④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32조(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p> <p>②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회 : 연 4 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p>③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④ 학생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⑤ 학생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제31조제2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담당한다.</p> <p>⑥ 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⑦ 학생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p>	

	<p>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33조(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제2절 학생참여위원회</p>	
<p>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34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기타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교육청 자문위안에서 ‘학생의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업무 내용을 구체화함</p>
	<p>제3절 학생인권옹호관</p>	
<p>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p>	<p>제35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p>	

<p>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p> <p>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p> <p>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p> <p>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p>	<p>육감이 임명한다.</p> <p>③ <u>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 및 처우는 <별표>와 같이 한다.</u></p> <p>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혹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p>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p>제36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p> <p>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p> <p>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37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p> <p>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p> <p>③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써 정한다.</p>	
	<p>제4절 학생인권지원센터</p>	
<p>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p>	<p>제38조(학생인권교육센터)</p> <p>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p>	

-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계약직공무원을 두며 그 정원 및 그 처우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학생인권옹호관등의 정원, 급여 및 처우기준

구분	정원	급여 및 처우기준
학생인권옹호관	1인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
학생인권교육센터 팀장	3인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
학생인권교육센터 팀원	12인	7급 내지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문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p>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p>	<p>제40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p> <p>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1조(공청회 등)</p> <p>① 교육감은 교육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6절 학생인권영향평가</p>	

	<p>제42조(학생인권영향평가)</p> <p>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교육감의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 교육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는 광주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미처 담지 못한 진전된 조항인 만큼 교육청 자문위원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함.</p>
<p>제4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p>	<p>제4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p>	
<p>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p> <p>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p> <p>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43조(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학생인권 상담실을 둔다.</p> <p>③ 제2항의 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밖에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p>제44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p> <p>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때</p>	
	<p>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때</p>	

	<p>에는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의 동의(이하 「피해당사자」라 함)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으로 혹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p> <p>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조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이 장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p> <p>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p> <p>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질의를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p>	
	<p>제45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p> <p>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p>	

	<p>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직원,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혹은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p>	
	<p>제46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장에 의한 사건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7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이 장의 구제신청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학생인권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지득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장 학생인권 교육과 홍보</p>	
	<p>제48조(학생인권교육과 홍보)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이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 및 그 홍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이 장에서 정한 인권교육과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p>	

	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인권옹호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p>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p>	<p>제49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p>	
<p>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p>	<p>제5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p>	
<p>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제5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제52조(보호자 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p>	
<p>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p>	<p>제53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p>	
	제6장 보칙	
<p>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p>	<p>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p>	

<p>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p>	<p>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p>		<p>2조 정의 조항을 수정하였으므로 불필요함.</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 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u>3개월 이내</u>에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p>	